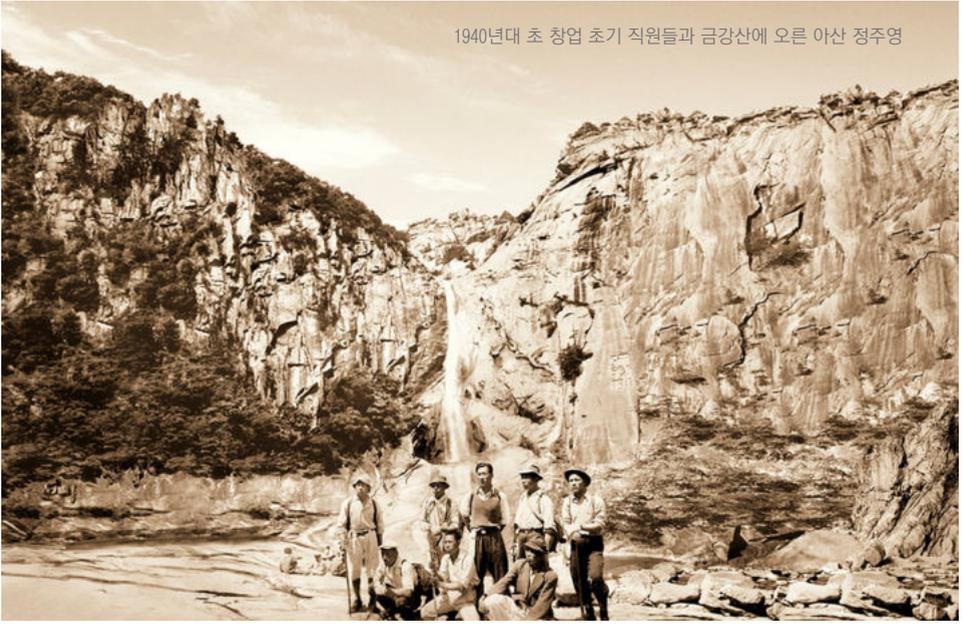


1940년대 초 창업 초기 직원들과 금강산에 오른 아산 정주영



스스로 원해서 어려운 일을 맡고,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젊을 때에 미리미리 쌓아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사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아산(峨山) 정주영

CONTENTS

아산나눔재단 소개	2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4
제6기 글로벌인턴 발자취	6
제6기 글로벌인턴 활동수기	9
제6기 글로벌인턴 문화탐방	44

아산나눔재단 소개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꿈의 주체이자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건강한 젊음'에 의해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역경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꿈과 열정, 도전과 창조, 나눔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이루어 낸 아산의 정신을 오늘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VISION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MISSION

아산나눔재단은
젊은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열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핵심가치

꿈과 열정: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열정
도전과 창조: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도전 정신
나눔과 책임: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자의식

■ 사업선택 원칙

역량개발: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 사업진행의 방식

책임성: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 있는 투자
질적 성과: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인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청년창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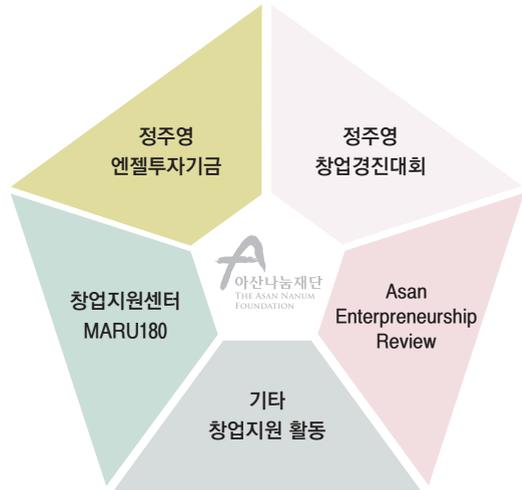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에 꿈을 지닌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누구나 청년 정주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업지원공간 MARU180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글로벌리더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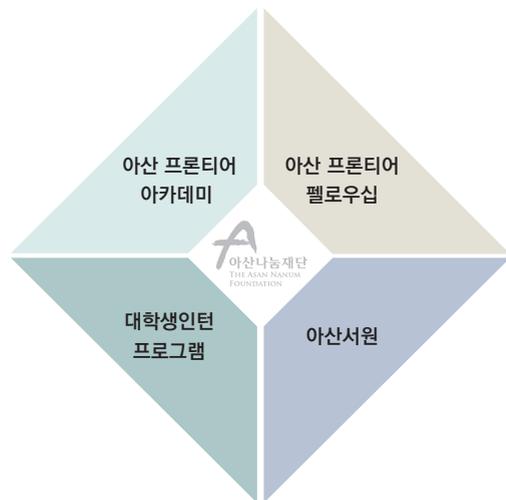
아산나눔재단은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비상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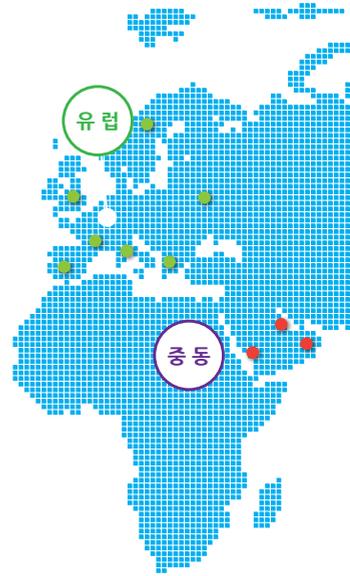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펠로우십



글로벌인턴 프로그램 소개



1기



11개국

20개 사업장

175명

2기



18개국

39개 사업장

222명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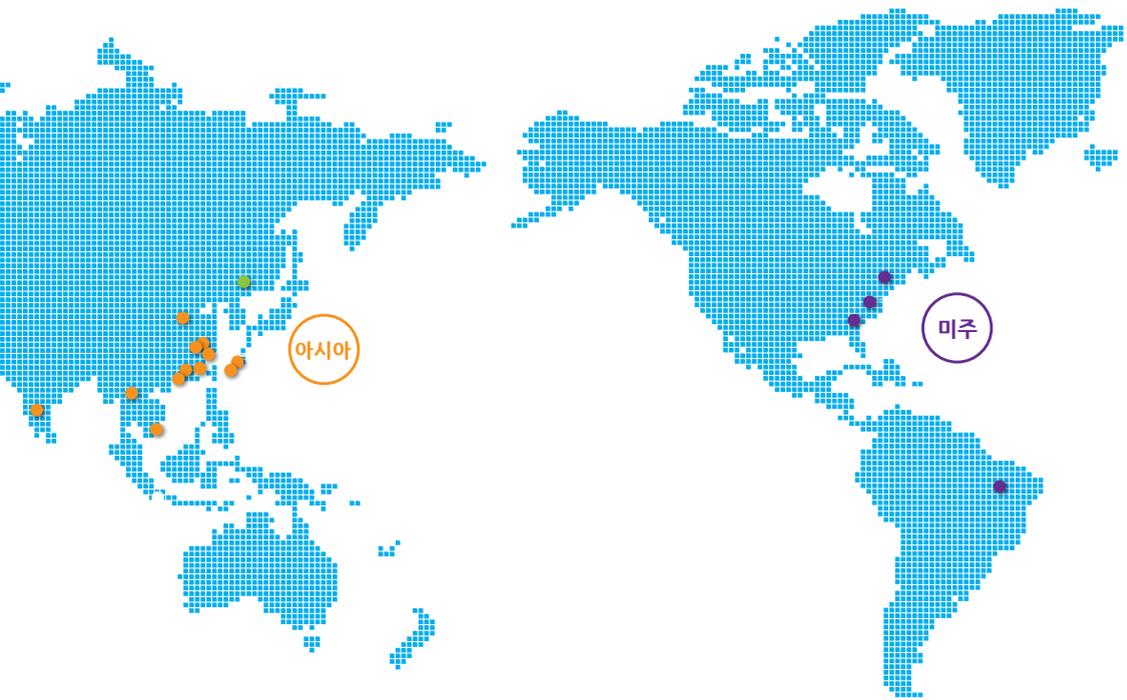


8개국

20개 사업장

58명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글로벌리더 양성 및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청년들은 해외에 나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해외 현장에서 실무를 쌓을 수 있습니다.



4기



9개국

17개 사업장

44명

5기



7개국

11개 사업장

46명

6기



6개국

10개 사업장

32명

제6기 글로벌인턴 발자취



2014. 07. 04. 제6기 글로벌인턴 오리엔테이션



2014. 08. 19. ~ 22. 제6기 글로벌인턴 사전교육 및 발대식



2014. 09. 01. 제6기 글로벌인턴 현장파견



2014. 09. 02. ~ 12. 23. 제6기 글로벌인턴 현지 생활



2014. 01. 07. ~ 08. 제6기 글로벌인턴 귀국워크샵



제6기 글로벌인턴 활동수기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Beijing

김미형, 김연경, 김정숙, 송정아

Hyundai Oilbank
China Shanghai

강소영, 송주양

철저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정상에 있는 북경법인

Hyundai Heavy Industries China Beijing

약 481명의 현지 직원과 10명의 주재원이 이끌어 가는 현대중공업 북경법인!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은 중국 북부 서남쪽에서 2002년 9월 1일 현지 생산법인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연간 약 6,000대의 지게차와 중소형 굴삭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법인장 이하 전직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현지의 다른 기업들 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선점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은 훌륭한 현지직원들과 함께 상생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확대 및 한국본부 연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사천성(四川省) 대지진 당시에는 23억 상당의 19대 중장비를 가장 먼저 참사 지역에 투입시키는 등 사회에 대한 공헌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로 인해 현지인들의 입사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습니다.



김미형

충북대학교/중어중문학



실무경험을 통해 배운 책임감

가장 감사한 분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신 와중에도 인턴이 조금 이나마 배워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주신 담당 부장님이십니다. 주로 번역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번역뿐만 아니라 PPT작성, 각종 분석업무, 프로젝트, 대리상 업무, 보고서 작성과 같이 다양한 일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들이 쌓일 때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뻛고, 해당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 부장님께서 내주신 복경법인 ERP사용 현황 조사를 통하여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타 부서와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부서 업무 특징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입사 시 부서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선택, 관리부!

인턴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저희 인턴 4명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복경법인에서 사용하는 ERP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실무자 상담을 통해 각 부서의 업무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분들과 교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개월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전무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무언가를 남긴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대해주셨던 관리부 부장님이 많이 생각합니다. 첫 출근하는 날 관리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자원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매주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주말에는 함께 볼링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귀국 후에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 뵙고 싶습니다.

김연경

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문학



김정숙

중양대학교/중국어문학,기계공학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라 더 뜻깊었던 인턴생활**

인턴생활이 끝나고 저를 돌아보니 어찌나 많이 성장했는지, 제 자신이 다 뿌듯합니다. 제가 배치된 품질부서는 다방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주 현장을 접하고 공부해야 하는, 마치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매력을 알려 주시고, 엔지니어로 성장하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신 품질부 김진태 부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 때 요새 한 명이 줄어서 어색하다는 중국직원의 메시지를 받으니 밥 먹을 때 마다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퇴근 인사를 쉽게 끝내지 못하고 목이 멘 상태로 말을 잊지 못하던 직원의 모습과 웨이신(중국판 페이스북)에 올린 중국직원의 글 [한국에서 온 김정숙에게, 웨이신에서 나와 너의 웃는 모습과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가 앞으로 평생에 얼굴을 못 볼지라도, 반드시 좋은 소식 주고받고,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자.]을 보니 다짐이 생겼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의지가 되었던 우리 베이징 인턴 자매들, 비행기안에서 음료수 건배를 하며 서로를 다독였는데 정말 감사했고, 우리모두 발전한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한 밑거름, 글로벌인턴

처음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설계변경 통보서를 번역하는 일로, 그때는 굴삭기 용어는 물론 이를 중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황당한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붐(BOOM)’의 경우 굴삭기의 팔 부분을 가리키는데 굴삭기의 구조를 몰라 중국어로 직역인 ‘팔’로 번역했던 웃긴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후 직접 굴삭기를 보고 각 구성 부품을 익힌 뒤 중국어로 다시 한 번 공부하는 노력을 진행하며 처음의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업무 외에 현대중공업 북경법인에 파견된 인턴 4명에서 함께 진행한 ERP 프로젝트는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이해하고, 다른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파견기간과 겹쳐 운 좋게 참관하게 된 아시아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인 ‘2014 바우마 전시회’부터 현대인의 밤 참석과 협력업체 출장까지 4개월이 마치 4년처럼 알차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만큼 아직도 북경에서의 4개월이 많이 그립고 여운이 남습니다. 이제 이 4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기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이 생긴 지금, 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송정아

인하대학교/국제통상학



중국 대륙만큼 큰 시장 잠재력을 위해 전략적 고군분투

Hyundai Oilbank China Shanghai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석유화학 제품으로 진출한 현대오일뱅크 상해법인인 중국시장 개척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2012년 10월 12일 ‘現代能源貿易上海有限公司’ (현대에너지 무역유한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중국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최대 석유 수요처로, 법인 자체 명의의 제품 직거래를 개시하는 등 무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석유 시장에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등)관련 사업이 보호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국 국영 기업 외 외자 및 일반 기업의 거래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석유화학제품(프로필렌, 파라자일렌, 유탄 등)을 위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제품 수요처인 상해는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위치해 있는 서해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 거래 외에도 신규 제품 Pre-마케팅, 거래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법인은 장기 비전 사업으로 Hyundai Shell Base Oil 社(현대오일뱅크와 Shell사의 합작 회사)에서 만들어진 윤활기유와 본사에서 생산하는 윤활유 제품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성섬유의 주원료인 BTX 거래를 개시하는 등 중국 내 현대오일뱅크의 발전을 위해 3명의 주재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직원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소영

동덕여자대학교/경영학



잊지 못할 행복했던 인턴생활

글로벌인턴으로서의 지난 4개월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중국 시장 분석, 회사 인사자료 번역, 회사 소개자료 작성 등 업무처리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처리 못지 않게 열심히 다녔던 중국 여행. 그 중에서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여행을 해보자 라는 인턴의 패기로 도전했던 8일간의 신장지역 ‘생고생 배낭여행’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4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고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시던 법인장님부터 하나하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과장님들, 제 회사생활의 활력소였던 중국 현지 직원들, 그리고 인턴동기 주양이까지. 이들과 함께한 저의 인턴생활은 행복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냥 즐거웠던 인턴 생활

4개월 동안 회사에서 주로 중국의 석유 시장 조사와 번역작업을 했습니다. 석유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선임 직원들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다가가려고 애쓰고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 3주간의 노력으로 중국 직원들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 특유의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항상 챙겨주고 아껴줬던 직원들과 진로 및 사회 생활에 있어 많은 조언을 해주신 주재원분들 있었기에 즐겁게 인턴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말에 소영언니와 여행을 통해 다양한 중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책으로만 봤던 소수민족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영언니와 함께한 상해 생활은 앞으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제 능력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턴생활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계발에 힘쓸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다양한 능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젠 좀 더 도전적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이에서 좋은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주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스페인어학





Hyundai Heavy Industries
India Pune

이상헌, 임혜진, 최다혜

건설장비 사업의 요충지 인도 푸네법인

Hyundai Heavy Industries India Pune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사업부 인도법인은 인도의 서부 푸네(Pune)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네는 데칸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선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Pune 대학, Symbiosis 대학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모여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과 인도 대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푸네의 외곽지역은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Mercedes-Benz, Volkswagen 등 세계 명차 부품조립공장과 JCB, SANYO 등과 같은 인도 내 경쟁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위협과 경쟁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인력의 수급, 유관업체들의 부품 공급 등과 관련해서는 집적이익과 시너지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도 푸네 법인은 현재 시장 점유율 기준, 건설장비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분야의 경쟁에 뛰어난 지 5년 만에 점유율 18.9%라는 놀라운 성장으로 인도 시장에서 주목 받는 건설장비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 경기 침체로 인한 루피화 약세로 건설장비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탄탄한 내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현대 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현

울산대학교/기계자동차공학



잊을 수 없는 인도에서의 추억

인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9월.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도 문화교류의 장으로 열린 K-POP Contest에 현대 중공업의 이름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3명, 울산대학교 4명으로 구성된 팀 7명은 약 2주 넘게 매일 휴식도 없이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들만의 끈끈한 우정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월 27일 행사 당일 날, 저희는 수 많은 인파 앞에서 공연을 했고, 3등이라는 결과와 함께 오디오 세트를 상품으로 받았 습니다. 그간의 고생을 한번에 털어낼 수 있었던 순간이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인도에서의 인턴 생활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글로벌 인턴을 합격하고도 적지 않은 나이 탓에 고민했지만 다 무사히 끝마친 지금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고, 절대로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채로움의 가치를 배운 인턴생활

3명이 함께 보냈던 110여일의 인도에서의 인턴생활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가 어색하고 잘 모르던 9월, 저희 운 좋게도 K-POP 페스티벌에 나가게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틈틈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인도는 참 신기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시아국가인데 참 많이 달랐던 인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문화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이라는 경험을 통해 단순히 업무적 지식이 아닌, 그 이상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사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한 명, 한 명 개성도, 다른 점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저희 더욱더 다채롭게 인턴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임혜진

홍익대학교/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



최다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업경영학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준 큰 수확

인도 법인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 직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기준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마케팅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각 분야별로 마케팅의 직무가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실무적인 부분들을 직접 일을 해보면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를 담당하시던 과장님께서 “인턴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얻어갈 수도 있고 적게 얻어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좋은 기회지만 스스로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처음의 설렘과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마음을 중반부에 가서 잠시 잃었던 적이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는 이런 거구나” 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입니다.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환경에서의 문화 탐방 등 부수적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재단 및 현대중공업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san
Korea
New
Future



Hyundai Heavy Industries
Brazil Sao Paulo

손승학, 이상택, 임희선, 주예지, 진선미

떠오르는 산업도시에서 떠오르는 해외법인으로 발돋움할 HHIB

Hyundai Heavy Industries Brazil Sao Paulo

현대중공업 브라질 법인은 남미 경제의 중심인 상파울로(São Paulo)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이따찌아이어(Itatiaia)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1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3년 4월 건설장비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굴삭기, 휠로더, 백호로더 등 주력 건설장비 생산 규모를 늘려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매량도 매년 20% 이상 늘어나 2016년에는 브라질에서만 약 4,000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찌아이어시는 2,800m 높이의 산을 지닌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살기 좋은 시골 동네입니다. 또한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어 떠오르는 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4년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건설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승학

영남대학교/기계시스템

브라질에서의 인턴, 터닝포인트가 되다

2014년 7월 1일 글로벌인턴 6기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합격 소식에 들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한데 지금 활동수기를 통해 제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브라질에서 귀국 후에 동료인턴들과 나눈 말을 빗대어서 표현해보자면 마치 생생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16주 동안 현지에서 바라본 브라질은 제가 알고 있던 브라질과는 많이 달랐으며, 한 편으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브라질 현지인이라 언어적, 업무적인 측면, 사소한 유대관계까지 모두 저에게 있어선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개월 간의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경험들은 제게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 엘 칼라파테

1981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 페리토 모레노는 자연이 만든 걸작품이고 마치 얼음 성과 같습니다. 이 곳에 가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운 좋게도 다른 인턴들과 남극과 가까운 아르헨티나 남쪽의 산타크루즈 주에 위치한 엘 칼라파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땅한 겨울 옷이 없어 추울 법도 했지만 난생 처음 빙하의 세계를 마주하는 우리는 추위를 완전히 잊은 채 흥분하고 들떠있었습니다. 미니 트래킹을 통해 아이젠을 신고 빙하를 걸어 본다는 새로운 경험에 신기했습니다. 트래킹을 마무리하며 마셨던 위스키 한 잔은 지금도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느낄 기회가 많았고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뜨거운 열정이란 곧 젊음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택

거제대학교/기계공학



임희선

 흥원대학교/기계정보공학


Saudade, Brasil

지난 2014년 9월, 현대중공업 브라질법인에서의 인턴 생활이 시작되어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하루하루 모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추억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12월 17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지나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고 업무를 시작할 때 현지 직원들이 갑자기 부르더니 깜짝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타지에서 축하를 받으니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동시에 브라질에서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좋았지만, 브라질을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어울리며 지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 맞이한 25번째 생일. 브라질 생활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 제 마음 한 곳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Saudade(그리움), Brasil...

크게 생각하게 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지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그 곳의 시간들을 글로 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고 잊지 못할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아사이를 먹고 Curitiba에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 버스를 20시간동안 타기, 코파카바나 파도에 휩쓸려 파도 속에서 3회전 하기, 밤새 삼바 즐기기, 빙하 위를 걷기까지. 제 생애 다시 경험할 수 없을 일들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생각나는 일은 '생각해본 적 없는 질문에 당황했던 일' 입니다. 담당자이자 브라질법인의 인사부장님이신 김부장님께서 '브라질은 왜 가난한가, 이번 브라질 대선에선 누가 이겨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던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관련 기사도 많이 찾아보는 등의 공부를 하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디렉터이셨던 배 차장님께서도 브라질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고 물음을 던지셨는데 그 덕분에 브라질의 세금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 힘든 것들, 공부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브라질법인의 주재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예지

 중앙대학교/수학,응용통계



진선미

단국대학교/경영학



모든 게 달랐던 브라질에서 더욱 끈끈해지다

우리와 정 반대에 있는 나라인 브라질에 가서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뜨거운 커피만 마시기, 토요일은 점심까지만 영업을 하고 일요일에는 거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강한 가족문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계산서에 1인 당 가격이 있는 더치페이 문화를 가진 브라질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5명의 인턴들과 단체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추억을 얻었고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조율해가며 결정을 내려야 했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맞춰가며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시차로 한국과 연락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저희는 타지에서 외롭고 지칠 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고, 여행을 함께 떠나 길을 헤매기도 하고, 밤새 수다를 떨어보는 등 잊을 수 없는 우리들만의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4개월 간의 인턴 생활을 통해 값진 경험을 했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4

Hyundai Oilbank
Vietnam Hanoi

김낙일, 박진우

Hyundai Vietnam
Vinashin Shipyard

김원빈, 김희선, 성현정, 오현묵

베트남의 성장과 함께 나아갈 오일뱅크 하노이지사

Hyundai Oilbank Vietnam Hanoi

현대오일뱅크 하노이지사는 2012년 5월에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지사장) 1명과 현지인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지사는 베트남과의 석유산업 거래규모를 확장하고, 베트남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의 기금으로 베트남 TuyenQuang 지역의 유치원 재건축 및 초등학교 신축을 지원하는 등 베트남 현지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지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규모의 석유제품 수출을 달성해왔으며 그 외에도 유탄유 시장 신규 진입 및 각종 석유/에너지와 관련한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미얀마, 라오스 등 인근국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베트남의 국토는 33만km²로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하며, 인구는 약 9천 5백만 명으로 세계 14위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500불 수준이지만, 매년 5%가 넘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사업기회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낙일

인하대학교/
통계학, 산업경영공학

**베트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다**

베트남의 문화는 생각보다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 가옥마다 향불을 피워 조상의 명패를 모셔두는 것과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는 것 등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와 매우 닮은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 특성 상 상하로 2000Km가 뻗어있고 50개가 넘는 민족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후와 음식 등 이 달라 각 특징이 두드러 진다는 점도 인상깊었습니다. 그 중, 중부의 다낭에 있는 인도네시아계 참족의 문화유적지를 본 것은 베트남의 문화와 민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터넷생활을 통해 기업의 운영방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소양은 물론,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법과 프레젠테이션 기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Petroleum Product의 수요량 산출과 Tank Terminal에 대한 자료 정리 업무를 해 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생(未生)이기에 '미생(美生)' 이었던 113일

베트남으로의 파견 113일동안 여러 미션들과 업무들을 수행하며 얻은 교훈은 '연고자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얻을 수는 없으며 얻을 생각도 하지마라'입니다. 무엇이든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와 거절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연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저는 제 자신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번 인턴 기간을 통해 적극성이 많이 늘었습니다. 파견 초반에 주유소 내 CVS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주유소로 직접 나가 시간당 차량 대수를 세면서 미션을 수행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머뭇거렸다면 아마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는 후에 매일 아침 금리, CPI, 주가지수, 환율 등 베트남 일일 시장정보를 보고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 책상에서는 도저히 중앙은행의 금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주변 은행을 찾아가 물어보기까지 했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 덕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어서 배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진우

홍익대학교/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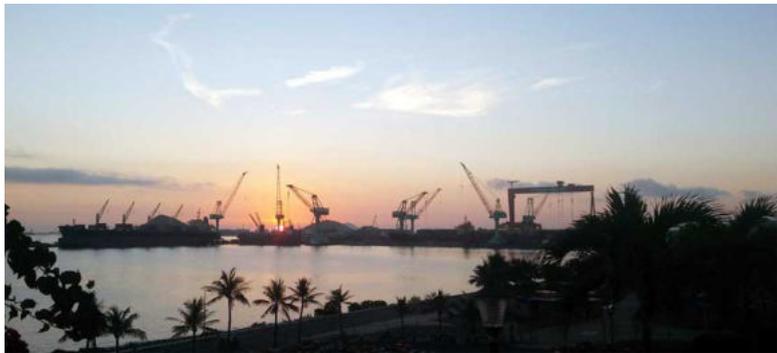
과거 선박 수리사업에서 직접 선박 건조까지

Hyundai Vietnam Vinashin Shipyard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휴양지 나짱(Nha Trang)에서 1 시간 떨어진 닌호아(Ninh Hoa) 마을에 위치한 현대비나신 조선소는 과거 베트남의 국영 조선소인 Vinashin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인수하여 각각 30%, 70%의 지분을 가지고 1996년 설립된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해외 설립 조선소입니다. 과거에는 선박 수리사업을 하였지만 현재는 현지인의 높아진 숙련도와 현대미포조선의 고급인력 및 기술력이 투입되어 Bulk 선박부터 PC선까지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HVS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4000명으로 이들 중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75 명이며 그 외는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무직, 엔지니어 부서마다 한국인 관리자의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하에 현지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엔지니어의 경우 한국인 과장, 차장, 부장 등의 관리직 임원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의 경우는 현대미포조선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 직원들이 교관으로 배정되어 현지의 현장직원들을 지도, 교육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VS는 본사의 수주 주문에 따라 선박을 건조합니다. 주로 Bulk 선박을 건조하였지만 최근의 조선경기의 침체로 선박 수주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Bulk선박을 주력으로 건조하였지만 현재는 더욱 더 고부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박인 PC (Product & Chemical Tanker)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원빈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

**단단해지기**

누가 제게 “성공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다른 누구와의 경쟁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생활을 시작하면서 상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조선소는 수많은 부서들로 나누어 철저히 분업화 되어있고, 그 속에서도 세부적인 부분들로 나뉘며 각자에게 철저히 전문화가 되어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제 머리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천만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만했던 생각을 반성했습니다

글로벌인턴은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겠지만 새로운 도전들을 거듭해나가며 저를 단련 시킬 것입니다. 저의 성공을 위해!! 끝으로 현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신 현대 비나신법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빈 손으로 떠난 여행, 두 손 가득 가져오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베트남 행 비행기에 오른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돌아온 한국은 여전히 춥지만 합니다. 매일 아침 다섯 시 반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제 생애 첫 과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상무님. 출근 첫 날, 퇴근시간 5시 30분이 넘어서도 퇴근을 하지 않으시는 과장님 때문에 컴퓨터 위로 눈치를 보며 2시간을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면 복사를 할 줄 몰라 복사기 앞에서 우물쭈물도 해봤고, 과장님의 야단에 레포트 수정만 열 번을 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회사생활이었지만 점차 제 자리를 잡아가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기며, 때론 친구 같고, 아버지 같은 부장님과 한국인보다 더 잘 통하는 여러 현지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의 인턴생활 마쳤습니다. 빈 손으로 오른 비행기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경험, 제 생애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선충북대학교/
영어영문학,국제경영학

성현정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



고삐 풀린 인턴이 되다!

저희 4명의 인턴들은 HVS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부서를 방문하며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상무님과 부장님들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홍성구 상무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턴은 실질적인 업무는 없으니 문화를 체험하고 관계를 만들어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다가가라.” 이 말씀 덕분에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HVS 파견원분들께 쉽게 다가가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고삐 풀린(?) 4개월 간의 인턴생활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헤어짐이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뭉치자는 약속 덕분에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저의 노력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꿈같이 지난간 4개월이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글로벌인턴은 저에게 있어서 큰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인과 파견인원들이 인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중에서도 단연 베트남 현지 로컬 식당에서 회식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을 마치고 길거리의 조그마한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맛있게 먹었던 조개구이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제가 자청하여 현장실습을 주로 다녔습니다. 조선공학이라 그런지 조선소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뜻 깊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야드로 나가서 야드와 친해 지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파견인원들을 따라 건조중인 배도 가보고 배 구석 구석을 차지하는 블록도 배워 본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현지인들에게 한국 라면을 끓여서 대접하고 과자 파티도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현목

경남대학교/조선해양·IT공학



RUS SIA

Hyundai Russia
Khorol Agro

김태현, 표병찬



연해주 우수리스크 농장

Hyundai Russia Khorol Agro

현대자원개발 연해주농장은 2003년 Martin & Irina Tate 농장을 구입하여 'Khorol Zerno'로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농장 지분을 인수하였고 2010년에는 Hyundai Khorol Agro(이하 현대 하롤 아그로)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연해주농장의 영농 다양화 및 규모 확대를 위해 Hyundai Mikhailovka Agro(이하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를 신설하였고 2012년에 '현대 하롤 아그로'라는 낙농사업분야까지 확장하여 진출했습니다.

'현대 하롤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5,367ha이며, '현대 미하일로브카 아그로'의 관리면적은 3,353ha입니다. 총 운영면적 9,651ha 가운데 2013년의 파종면적은 6,900ha이며, 잔여 농지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작을 위해 격년으로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료용 옥수수과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해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최신식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원개발 목장은 새로운 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새롭게 사육되는 소는 바로 '젓소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종인 독일 품종 '홀스타인' 입니다. 암소는 연평균 5000~6000kg의 우유를 생산하며, 우유종 중 가장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연해주 농장은 향후 해외 농업 개발사업의 전진기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통해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3만톤 곡물 생산 및 저장 능력을 갖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고려대학교/노어노문학, 행정학


글로벌인턴을 통해 배운 3가지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으로서 보낸 지난 4개월은 제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 대해서 배웠고, 해외 영업의 특징을 몸소 체험했으며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생각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내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념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 생각이 성장하고 변화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인턴으로서의 4개월은 저에게는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은 마음의 소통

연해주에서 보낸 인턴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법인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4개월간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서 언어,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서로 힘들었던 러시아 직원들과 인턴에게 끝없는 가르침을 주셨던 사원 선배님, 대리님. 그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기에는 아쉬웠던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아쉽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후를 거의 다 사용하여 성의가 듬뿍 담긴 글을 완성했고, 출국 2시간 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미숙한 제가 그들로 인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또 발전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노력을 읽은 눈치였는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서로의 성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했고 어느 직원은 준비한 선물을 주며 4개월간의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과 가슴으로 소통을 나눴을 때 그 짜릿하고 복잡한 기분을 제가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저에게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4개월, 그리고 그들과의 마지막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표병찬

성균관대학교/러시아어문학



SAUDI ARABIA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HAL

김태훈, 최재욱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Jeddah

김성철, 이운오, 정다빈, 조현호, 한 용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Shuqaiq

순장규, 이영민, 임성묵

바쁜 현장공사 속의 HAL법인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HAL

HAL법인은 현대중공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사업장의 센터격인 현지 법인입니다. 법인은 Alkhobar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의 각 현장에서 많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HAL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원활한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법인이 각각 배정하는 현장으로는 JGP, UGP, SGP현장이 있습니다.

JGP(Juaymah Gas Plant)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인력·안전관리,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인력 관리 업무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UGP(Uthmaniyah Gas Plant)현장은 착공을 가장 늦게 시작한 공사현장입니다. 2013년 09월 01일 착공을 시작한 이래로 UGP의 최종 목적은 Gas & Steam을 이용하여 사우디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Plant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증축 공사를 위한 현장입니다.

SGP(Sedgum Gas Plant) 현장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티하마 발전회사의 티하마 열병합발전소 확장사업을 위한 3개의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3억불에 계약을 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HAL 본사인 Dammam에서 131km 떨어져 있으며 숙소인 Uthmaniyah Camp에서 64km 떨어져 있어 버스로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HAL법인에서는 총괄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계명대학교/화학공학



작은 추억들이 모여 내 삶의 원동력으로

아직도 공항에서 문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안경이 뿌옇게 변하고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오는 느낌이 생생한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활동 수기를 쓰려는 순간 떠오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HAL법인에 계시는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분들께 작별 인사했던 때 입니다. 4개월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보람과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턴생활 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시는 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힘든 곳에서 서로 동고동락 하면서 작은 추억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쌓이게 된 것을 작별인사 드리는 순간 느꼈습니다.

꼭 하나의 큰 추억이 아니더라도 작은 추억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추억으로 기억되고, 그 추억들이 앞으로 내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나 가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바쁜 현장공사 속의 HAL법인!

현대중공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으로의 파견은 저에게 가장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해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JAZAN Refinery & Terminal Project 공사를 경영 지원하면서 Project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업무 현장에서 노동자 1200명가량 중에서 한국인이 50명 미만이었기에 삼국인 노동자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았던 것도 정말로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경제학



뜨거운 햇빛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제다 화력발전소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Jeddah

뜨거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동시에 부는 곳이 바로 제다 화력발전소 현장입니다. 공사 금액이 무려 3.5조원에 육박하는 제다 플랜트는 완공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전력의 5%를 생산하는 사우디 국가의 중요 발전시설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름을 내걸고 기자재 제작, 공급, 건설, 시운전까지 일괄 담당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의 하루는 새벽 5시반에 '람'과 함께 시작됩니다. 새벽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저녁 6시까지 현장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철

명지대학교/토목환경공학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 글로벌인턴

사우디아라비아 JEDDAH에서 경험했던 약 4개월의 활동을 떠올리면, 낯선 환경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마쳤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시간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준비하겠다는 다짐에서 이번 인턴 활동의 참 뜻과 더욱 값진 가치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이제까지의 궁금증도 풀어가고, 직접 업무도 진행하면서 각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으로 인도해 주신 현장의 선배님들, 각자의 개성과 열정으로 푹푹 뭉친 글로벌인턴 6기 친구들, 글로벌인턴 프로그램의 진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참신한 생각과 집중으로 노력하신 아산나눔재단의 담당자님.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곳, 사우디!

아산나눔재단의 글로벌인턴 6기에 합격하고 나서 정말 기뻐합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설렘이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플랜트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둘러보는 것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폭우였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는데 단 몇 분 만에 폭우로 변해 인터넷 타워가 무너지고, 지붕이 휘고, 배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물이 가득 차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먼지로 인해 '비가 조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사우디에도 비가 올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비가 오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사우디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삶을 살면서 밑거름이 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준 아산나눔재단과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현대중공업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운오

서울시립대학교/경영학



정다빈

충남대학교/전기공학



사우디의 양면성

언제나 더운 날씨 아래 현장에서 근무하며 힘든 일과를 보내지만 회식은 이런 힘들을 견딜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끔씩 생각나곤 하는 양고기 바비큐 파티는 양고기를 사온 후, 직접 핏물을 빼고 소금 및 후추가루와 함께 파인애플을 갈아 넣어 숙성시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숯불에 구워 부서 내 직원분들과 함께 즐기는데 이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 속에서도 즐거운 일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은 아니지만 중동지역에도 계절이 바뀝니다. 11월 중순 즈음에 약 일주일 정도의 우기가 찾아오는데, 어느 날 잠깐의 비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맑을 것만 같았던 하늘이기에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우디에서의 경험들은 '새옹지마'란 무엇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었습니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곳, 사우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말은 많은 업무인 보일러 자재 납기 관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업무 시작 날, 보일러 공무원장님은 당시 플랜트 용어와 기능조차 몰랐던 제게 보일러 자재를 납기 안에 들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 “너는 인턴이 아니다. 우리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프로이다.”가 떠오릅니다. 당시 업무의 직속 선임자 또한 없어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근을 하고, 플랜트에 대해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주 후에 대리님께서 오셔서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5개 업체들의 PM과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플랜트 보일러에 핵심이 되는 철골인 97t, 137t Heavy-Girder와 납기 지연이 심각했던 Buckstay 자재를 들어오는 등 local 및 해외 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모두 나타낼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현대중공업 체다 법인,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신 보일러 공무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현호

건국대학교/기계공학



한 용

승실대학교/전기공학



잊지 못할 사막에서의 첫 비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출근 후에 현장 한 바퀴를 돈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천정에서 두둑두둑 하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막에 온지 80일만에 맞는 첫 비라 나름 사막의 비는 어떨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밖을 나가려는 순간, 사무실 내부에서 빗물이 미친 듯이 새어 나와 모두들 달려들어 컴퓨터 및 전자기기를 비닐로 감싸고 큰 통을 가지고 빗물을 받아내어 내부상황을 진정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이미 홍수를 보는 듯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형차는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고 현장은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이 와야 일어나는 일들이 이 곳에서 잠깐 2시간 비가 내려 발생했던 일들을 대처해 나가면서 배수시설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사막에서의 첫 비는 저에게 유비무환과 잊지 못할 경험을 주었습니다.

신뢰와 기술이 융합된 사우디아라비아 슈케이크 화력발전소

Hyundai Heavy Industries Saudi Arabia Shuqaiq

슈케이크 현장은 사우디 남서부 지잔시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완공 계획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슈케이크 화력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EC)가 발전시설의 증장기 확충사업을 함에 따라 총 발전용량 2640MW급 초대형 중요 연소 초임계압 화력발전소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발주사로부터 기술력과 공사 수행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012년 10월, 32억불 규모의 '제다 사우스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데 이어 2013년 8월에는 33억불에 이르는 슈케이크 공사의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제다 사우스 화력발전소에 이은 연쇄 수주로 더욱 책임감이 커진 현장은 좀 더 신속하고 정밀한 공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순장규

숭실대학교/건축공학, 경제학

난생 처음,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가득했던 사우디

하루에 현장을 10km가까이 걸으면서 발에 물집 잡혔던 것은 기본이고, 10월 19일. 생일 날... 첫 야간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경험한 것은 저에게 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12월 10일. 밤새워 타설하면서 체력의 한계와 인내심도 배우게 되었고 힘들 때 더욱 큰 힘이 되었던 GS, 부장님들과의 추억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관리문제로 화난 하도급업체 CM을 대신하여 발주처에게 대신 현장을 설명하며 양해도 구해보고, 한 여름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1시간동안 철근공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서다 손가락이 빠는 실제상황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님, 과장님의 진솔한 본인경험과 의견 등을 들으며 그분들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우디 슈케이크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들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의사소통을 배우다

해외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사우디,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 다양한 인종, 국가가 공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일하면서 글로벌 기업에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부장님들과 함께 하청업체 주간 회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하청업체 글로벌 직원들은 우리 측의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에 다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늘이지만 하고 실속은 챙길 수 없는 회의였습니다. 제 영어실력도 형편 없었지만, 이번 인턴기간을 통해 최대한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

업무나 책임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자리가 인턴이기에 자유롭게 부서 내 글로벌 직원들과 업무적인 얘기부터 사사로운 얘기까지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사 측 검사관과도 업무를 진행하며 비즈니스적인 소통을 하는데도 익숙해졌습니다. 보람찼던 인턴 생활은 끝났지만 앞으로 글로벌 속에서 일하겠다는 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영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계공학



임성목

 단국대학교/토목환경공학


현장에서 보고 배우다

사우디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한 것만큼 잊지 못할 추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현장을 나갈 때 사우디에 온 것 같은 무더운 날씨에 적잖이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현장은 Intake현장으로 플랜트에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기 위한 물을 취수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로, 터파기를 막 끝내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무사고 무재해를 염원하면서 현장에서 염소를 잡아 피를 현장에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Intake 시설은 매우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서 하루에 레미콘 차량을 240대 썩 받아서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워낙 대규모의 양이라 다른 장소에서 공사를 마치는 저녁 6시부터 타설을 시작해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밤새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함께 치면서 정말 모두들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상주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본 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6기 글로벌인턴 문화탐방

중국

샤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도

Goa, Golden triangle, Ajanta, Ellora

브라질

이과수 폭포

베트남

호이안, 다낭, 후에

나짱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두바이

CHINA

샤먼여행기

샤먼(厦門; 하문; Amoy; 옛이름)은 중국 남부의 푸젠성(福建省; 복건성) 남동부에 위치한 해변도시입니다. 연중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열대식물과 열대과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변도시인 만큼 해산물도 다양합니다. 또한 대만과 인접해있어 대부분의 의식주 문화가 대만과 비슷하며, 방언은 민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샤먼이란 이름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2008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투러우(土樓; 토루)가 있고, 바다의 화원이라 불리는 구랑위(鼓浪嶼; 고랑서)도 있습니다. 이른 겨울에 접어든 베이징을 잠시 떠나 비행기로 약 3시간, 따뜻한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샤먼이라는 이 따뜻한 남쪽 도시는, 그 동안 베이징의 스모그와 추운날씨에 지쳐있던 저를 맑은 날씨와 야자수로 반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 보이는 남쪽도시의 단어들, 的士(택시; 베이징에서는 出租车라고 불림), 巴士(버스; 베이징에서는 公交车라고 불림)들은 샤먼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했습니다.

첫 날은 '지난 2개월간 잘 버텼다, 긴장으로 생긴 피로를 풀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라는 의미에서 온천을 선택했습니다. 일월곡(日月谷)은 중국 10대 온천 중 하나로,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온천에서 몸을 풀고 난 뒤 샤먼의 메인거리인 중산로로 향했습니다. 중산로의 밤거리는 마치 한국의 명동처럼 활기찼습니다. 대신 명동과 달리 그다지 높지 않은 유럽풍의 건물들이 샤먼만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첫째날 샤먼의 현재를 보았다면, 둘째날은 샤먼의 과거를 보러 나섰습니다. 샤먼의 과거는 아주 독특합니다. 투러우(土樓; 토루)가 바로 이것인데, 글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주택입니다.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 때문에 투러우 또한 산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투러우를 구경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산 위에서는 투러우가 원형, 직사각형 등 다양한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보니 방어를 위해 높게 쌓아 올린 벽을 보며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라면 외벽은 흙을 사용했지만 내부 구조는 주로 나무를 사용하여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 건축물의 수로가 궁금했습니다. 집단주택인 투러우는 참 독특하게도 각 집마다 내부에 우물이 있으며(마치 방안에 우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길은 투러우의 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바깥 수로와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샤먼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화 같은 섬, 구량위(鼓浪嶼)로 향했습니다. 샤먼 항구에서 5분정도 배를 타고 가니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량위에 도착하니 서양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일찍이 외국 영사관이 이곳에 위치하여 과거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과거 건축물들을 개조하여 별장 등 구량위섬 자체가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량위섬이 굉장히 작은 탓에 한 시간 정도를 돌아다니니 다 본 것 같습니다. 지도가 없어도 이 길과 저 길이 다 연결되어 있어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베이징에 있다가 차가 한 대도 안 보이는 이 곳에 있으니 마음이 절로 편해졌습니다.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길거리 음식들, 즉 간식거리입니다. 특히 샤차미엔(말레이시아의 샤차장이 중국 샤먼에 전해져 변형된 면)은 샤먼의 대표적인 국수입니다. 고기, 생선 등 넣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가진 국수입니다. 그 밖에도 굴전, 땅콩 아이스크림, 망고빙수 등이 여행 내내 입이 심심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여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뒤에 두고 왔다고 느끼면 돌아간다. 그것이 너나의 여정이다.” 2박3일은 샤먼을 돌아보기에 제겐 정말 충분한 시간이었고, 어느 순간 저도 베이징에 두고 온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CHINA

7박 8일 간의 신장위구르자치구 여행

신장위구르자치구, 중국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내륙 가장 깊숙이 위치한 지역으로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중국 정부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장여행은 가기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가기 전 날까지도 회사 직원들,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안 가면 안되겠냐고 말리셨습니다. 실제로 가기 이틀 전에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신장위구르를 여행해볼까 하는 마음에 씩씩하게 신장위구르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는 카슈카르였습니다. 카슈카르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도 가장 서쪽, 중동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중국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온통 위구르어 간판들이었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에 히잡을 두르고 있어서 여기가 중국인지 중동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손짓 발짓 다해가며 물건을 사고, 길을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카슈카르에서는 살아있는 양을 가게 앞에 세워둔 후, 주문이 들어오면 양을 눈 앞에서 죽여 바로 꼬치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징그러워서 못먹겠다며 손사래를 치다가도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게 맛있었습니다. 카슈카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일요가축시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이 가축시장은 소, 말을 비롯해 낙타, 양, 염소, 당나귀 등 수십 종류의 동물 수백 마리가 거래되는 카슈카르 최대의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시장이라서 그런지 더 신기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시장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과 다른 외모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위구르인들이 무서웠지만 말도 안 되는 중국어로 서로 얘기하면서 깔깔거리다 보니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들었던 위구르인들의 마을을 떠나 카나스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카나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러시아와 접해있어 겨울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름에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카나스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 결과,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침대버스를 타기로 결정했고 12시간의 침대버스를 견뎌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의 발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단언컨대, 그 날의 발냄새는 살면서 맡아본 냄새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2시간 침대버스는 운행 중 총 3번 휴게소에 정차했는데 첫 번째 화장실은 문이 없는 화장실이었고, 두 번째 화장실은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카나스에 도착해서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카나스 호수로 향했습니다. 카나스 호수는 법인장님의 추천으로 급하게 결정된 곳이라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 아저씨와 중국 학생들을 만나서 호수로 가는 길에 묵을 숙소와 카나스 여행 일정을 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나스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 시안에서 왔다는 중국인 부부를 만나게 됐고 카나스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해발 1374m에 위치한 카나스 호수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는 데 비도 오고 너무 추워서 처음에는 싫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는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가 좋았습니다. 올라갈수록 비는 눈으로 바뀌고 눈은 우박으로 바뀌는 특별한 자연현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발 밑에 보이는 카나스 호수는 정말 최고의 풍경이었습니다.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보이는 옥빛 호수는 그야말로 장관 중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카나스에서의 1박2일이 지나고 다시 무시무시한 12시간 짜리 침대버스를 타고 우루무치로 왔습니다. 우루무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안에서도 한쪽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일반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며칠 전 일어난 테러사건으로 인해 곳곳에 경찰들이 긴 총을 들고 서있었고, 다른 곳보다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우루무치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가장 중국다웠던 곳이었고, 위구르인들과 중국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짧은 7박 8일의 여행이 끝이 났고,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풍경들과 겪지 못할 진귀한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신장위구르자치구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한 가지 고르라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5시간 기차를 타고 카슈카르로 왔다는 백발의 이탈리아 할아버지,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한국 대학생들, 실크로드 전체를 여행 중인 친절하고 중국인 부부... 이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나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다가도 제가 그 동안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두려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본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곳이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위구르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여행이었습니다.



INDIA

인도에서 그리는 청춘 여행

제가 인도에서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저 TV와 책 속에서만 접해왔었던 인도였고, 특유의 향신료 냄새와 판자촌의 풍경들, 비위생적인 거리들을 보았을 때만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꼭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인턴들의 청춘 여행이야기를 다시 하면 되집어보려고 합니다.

인도 속의 작은 유럽 'Goa'

저희의 첫 여행지는 동양의 리스본이라고 불리는 '고아'였습니다. 고아는 다른 인도 지역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 포르투갈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푸네에서 10시간 동안 슬리핑 버스를 타고 잠을 자면서 도착한 고아는 여느 인도의 분위기와는 달리 수 많은 서양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예쁜 해변가가 많아 여행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먼저 Anjuna라는 해변가로 1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해변에 도착했을 때 다들 처음 보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해변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바닷물로 그 간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옛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의 수도였던 올드 고아로 향하였습니다. Anjuna 해변에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도착한 올드 고아는 과거 수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 캐서린 성당과 그 맞은 편에 있는 봄 지저스 성당을 보면서 과거의 화려했던 문화를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인도에서는 보기 힘든 카톨릭 문화를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3박5일 간의 힘든 일정이었지만, 처음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여행의 꽃, 'Golden triangle'

여행을 끝내고 3주 뒤 저희는 'Diwali' 라는 인도 최대의 명절을 맞아 4박 5일간 인도 여행의 꽃인 'Golden triangle'을 다녀왔습니다. 수도 Delhi - Agra - Jaipur 이 세 개의 도시가 지도상으로 보면 삼각형으로 위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첫 날, 비행편에 문제가 생겨 Delhi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숙소로 향해 다음 날 Agra로 가기 위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둘째 날, 타지마할을 가지 전에 Agra 성을 들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간 곳이지만 엄청난 크기에 압도 당했습니다. 그 곳에서 시간가는 줄을 모르고 구경을 하다 하마터면 중요한 타지마할 일정을 놓칠 뻔했습니다. 타지마할을 가기 바로 전에는 베이비 타지마할이라는 타지마할 미니어처 같은 느낌의 유적지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자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건축물”이란 찬사를 받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인도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왕비의 무덤 건축물입니다. 22년에 걸쳐 2만명이 동원된 타지마할을 처음 볼 때는 TV에서만 보았던 광경이라 그저 너무 신기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 이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나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타지마할의 매력에 푹 빠진 채 Golden triangle의 마지막 꼭지점인 Jaipur로 향하였습니다.

Jaipur에 대해선 아는 것이 전무했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고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Amber Fort라는 산에 도착한 저희는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와~” 하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그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이 나왔고, 그 궁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 절경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을 했고, 타지마할과는 또 다른 인도 건축의 화려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Delhi로 돌아와 꿈같았던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도는 힌두국가이고 실제로 힌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인데 막상 유명한 유적지는 이슬람이나 카톨릭 문화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행에서 힌두와 불교 문화의 찬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힌두, 불교 문화를 말한다. “Ajanta& Ellora”

Golden triangle을 여행 후, 약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Ajanta와 Ellora라는 지역을 1박2일에 걸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지역을 조사할 때, 돌무더기들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인지라 관심이 적었던 것을 사실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8시간에 걸쳐 차를 타고 Ajanta로 향하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 2세기 아잔타 시기의 초기 불교 석굴 기념물과 5세기, 6세기의 굽타 왕조 시대에 들어 훌륭하게 장식된 수많은 석굴은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때 제작된 아잔타 벽화와 조각은 당시 예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약 20여개의 석굴을 구경하고 나니 벌써 3시간이나 흘렀고 이날의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Ellora는 힌두와 불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석굴이었습니다. 이곳도 약 20여 개 석굴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는 카일리쉬 사원입니다. 약 80미터가 되는 큰 바위를 직접 파서 만든 사원입니다. 이 곳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옛날 건축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Ajanta와 Ellora에서 타지마할과 Amber Fort에서 느꼈던 경이로움과는 조금 다른 신비함도 같이 느낄 수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못하였지만, 진짜 인도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울고 웃으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참고 이겨내면서 동고동락했던 우리 3명의 인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약 4개월간의 인도에서의 생활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큰 추억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인도에서의 청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지만, 앞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시작 될 청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인도에서의 추억이야기를 끝냅니다.



BRAZIL

Cataratas do Iguaçu (이과수 폭포)

지구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에서 생활을 하게 된지 벌써 3개월. 당연히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익숙해지고 정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세계 3대 폭포라고 지칭될 만큼 유명한 폭포이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대한민국 선수들의 베이스캠프로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곳입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후 비자 연장을 위해 이과수를 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제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질 생활 및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지내다 보니 2달하고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드디어 이과수 폭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3개의 나라에 걸쳐 크고 작은 폭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큰 물' 이과수(과라니어로 '=물', 'Guaçu=큰')의 거대한 물살과 빛의 조화로 이루어진 무지개를 보면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처럼 여기가 정말로 지구 상에 존재하는 곳이 맞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인위적으로 제작한 컴퓨터 그래픽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에 어느 한 쪽이 좋다고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었기에 두 곳 모두 가보고 느껴보면서 이과수 폭포를 제대로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 아르헨티나에서 트레킹과 보트투어를 하면서 이과수 폭포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언제 이렇게 강한 물살을 또 맞을지 모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악마의 목구멍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다리가 몇 개월 전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왜 빨리 수리를 안 하는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이과수 폭포가 더 보기 좋고, 웅장하다는 인솔자 김 부장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다음날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Vamos!!





저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소리... 마치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폭포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느껴지는 물방울과 나무 사이로 중간중간 보이는 폭포의 모습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과수 폭포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이과수 폭포에 방문했을 때 “이과수 폭포 앞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초라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세계 3대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도 꼭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바라본 모습은 전날에 보았던 이과수 폭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단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고 하면, 브라질에서는 전체적인 숲을 본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 이과수 폭포에 다시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의 뒷면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과수 폭포는 본래 파라과이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이과수 폭포는 3개 나라의 영토로 분리되었습니다. ‘아마존강’에 이어 남미에서 2번째로 긴 ‘파라나강’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국경을 구분 짓는 ‘우루과이강’과 합류하여 ‘라플라타강’으로 불리며 이는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이 강을 얻기 위해서 파라과이와 브라질만 전쟁을 하였지만, ‘라플라타강’을 공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위협을 느껴 브라질과 동맹을 맺고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삼국 동맹 전쟁’입니다. 이렇게 문화탐방을 하면서 역사를 하나하나 공부해나가는 재미 또한 있었습니다.

출발에서 복귀까지, 3박 4일간의 비자발급 & 문화탐방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않고, 위험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것들이 더 많은 나라 브라질, 특히, 오직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한국인들에게 가끔씩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브라질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과수 폭포가 한 나라였으면 입장료를 두 번 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VIETNAM

포용과 낭만, 여유가 있는 곳 호이안, 다낭, 후에

글로벌인턴 문화탐방기간으로 5일간에 걸쳐 호이안, 다낭, 후에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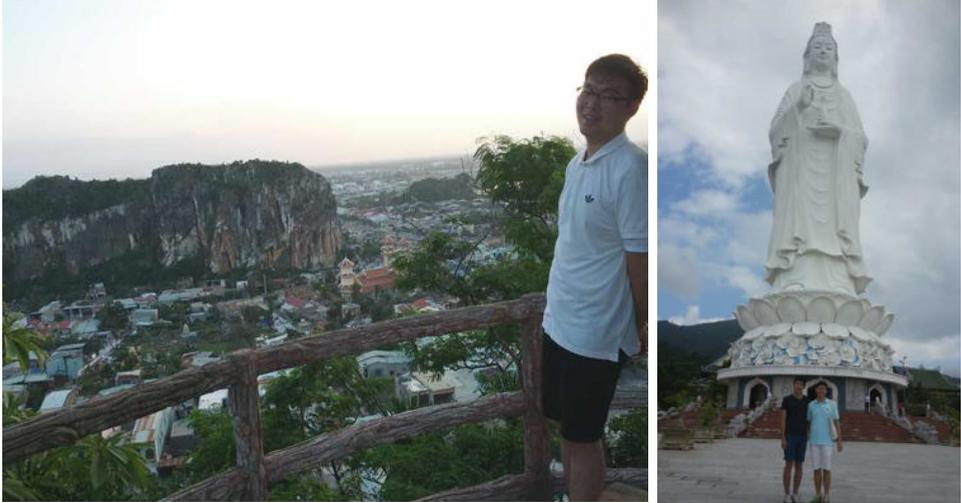
일정의 첫 날 호이안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어던지 혼동을 안겨준 복합문화가 저를 흥미로웠습니다. 호이안은 일본, 중국 상인들이 베트남의 옛 국제 무역 항구로 드나들었던 만큼 다양한 형태의 문화들이 한 데 어우러져 간직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풍흥의 집을 보면 하나의 가옥에만 해도 지붕은 일본식, 발코니는 중국식, 창문은 베트남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띐키'의 집 등 호이안에서 가옥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한 호이안에는 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여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 상당 수 있습니다. 호이안은 이처럼 회관, 사당, 다리, 고가(古家)들을 Ancient town 이라고 조성하여 한 집 건너마다 유적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호이안의 이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하다 보면 그냥 지나칠 방문지도 많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향불의 도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갖고 있는 제단에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상점도 심지어 호텔도, 길거리 노점상을 하는 분들도 작은 제단을 옆에 두고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피워대는 이 깊은 향이 몸을 휘감을 때, 투본강에서의 등불 축제를 즐기다 보면 호이안에서의 하루는 저물어 갑니다. (호이안을 지나가는 투본강에는 항상 음력으로 매월 중순에 등불 축제가 열립니다.)

다낭은 베트남 내에서 최고의 휴양지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해변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점차 늘어나는 리조트와 호텔이 해변을 사들이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 이전에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데, 삶의 터전을 제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휴양지로서의 모습 외에도 다낭은 동양 최대 불상인 67m의 해수관음상이 등대처럼 다낭 해변을 지키고 있는 링엄사가 있습니다. 특히 다낭은 숫자 5와 많은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의 5대 종교(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이슬람)를 혼합해,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교리를 가진 까오다이교 사원이나,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마블 마운틴이라고도 불리는 오행산은 이름에 들어간 숫자 5가 나무, 물, 불, 쇠, 땅을 뜻합니다. 또한 다낭은 5가지(도둑, 극빈자, 문맹자, 거지, 마약소지자)가 없어 5無의 도시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휴양지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낭은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까오다이의 사원 외에도 다낭 대성당을 방문하면 마리아 상 앞에서 향불을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포용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베트남의 경주라고 할 수 있는 ‘후에’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중부여행에서 후에를 보지 않고 온다는 것은 신라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행에서 경주를 보고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정도로 베트남의 화려했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후에를 보는 관점은 화려했던 응웬 왕조가 남긴 발자취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140년간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에는 왕궁과 왕릉들이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 근처의 구 도심 골목에는 오래된 가옥들, 항강을 따라 걸으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후에를 여행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본 때 만든 후에 왕궁은 많은 부분이 손상되고 무너졌지만 성안을 구석구석 다녀보면 응웬왕조의 번성했던 과거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왕궁 내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투어도 있는데 이 경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다녀서 구석구석 돌아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돌아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에는 많은 왕릉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왕릉은 카이딘 왕릉입니다. 카이딘 왕릉은 응웬 왕릉중 가장 화려한 왕릉입니다. 내부의 화려함은 생전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연회를 자주 열었던 카이딘황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왕릉과는 달리 정원이나 산책로보다 왕릉자체의 화려함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여행한 것처럼 후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목적은 왕궁과 왕릉 등 응웬 왕조의 지난 문화를 돌아보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왕릉들이 자리 잡은 만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컸습니다. 허물어진 유적지를 복원하고 과거의 흔적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 후에였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저개발국가, 사회주의 국가, 오랜 식민지 역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로만 가득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역사가 함께한 저의 문화탐방기는 베트남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경제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문화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베트남 문화탐방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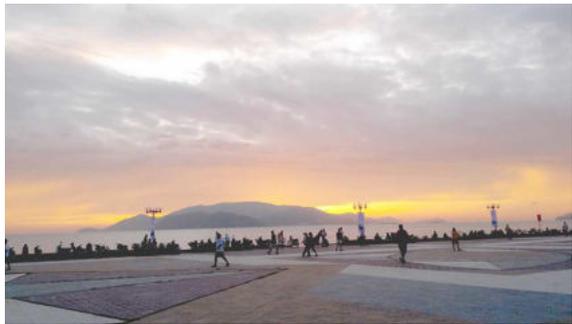
VIETNAM

동양의 나폴리, 나짱 여행기

인도차이나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베트남. 동양의 나폴리로 통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나짱에서 하얀 산호 모래사장과 에메랄드 빛 바다, 푸른 야자수의 조화를 맞볼 수 있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휴양도시, 나짱. 이 곳은 월남전 당시 백마부대 야전사령부가 주둔하던 곳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휴양지로 개발되었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항(美港)인 나짱의 백미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나짱 해변으로, 6km에 달하는 고운 모래사장이 일품입니다. 곳곳에 푸르게 우거진 야자나무는 뜨거운 햇살로부터 더위를 잠시나마 잊도록 해줍니다. 나짱해변은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여행자들과 데이트 중인 사람들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완만한 해안선만큼이나 한가롭고 조용한 분위기는 나짱만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나짱에 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보트투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나짱에서의 보트투어. 보트투어를 하면서 20여개의 섬과 400여 개의 산호들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이고, 스노쿨링 같은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아쿠아리움을 관광할 수도 있습니다. 보트 위에선 가무를, 물 속에선 튜브를 타고 와인파티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 꽃을 피워나갔고 멋진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해변가에서 벗어나면 곧장 찜담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후한 인심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과일들을 양껏 살 수 있었고, 과일을 그 자리에서 갈아 생생한 맛이 살아있는 '신포'라는 과일주스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나짱의 또하나의 명물은 머드스파입니다. 머드스파를 하면서 그 동안의 여행의 피로를 한방에 날려 보냈습니다. 하루종일 햇볕과 바람에 지친 제게 안성맞춤이었어서 욕조 안에서 진흙목욕을 즐기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외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인지 길거리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붕어빵처럼 또 하나의 베트남의 문화였습니다. 그 중 쌀가루, 파, 고기 등을 넣고 불에 구워 만든 '반깐'이라는 전통 음식은 저희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짱 거리에는 간이 의자와 거울 하나를 놓고 탁트인 공간에서 이발하는 모습이 흔히 보였는데, 이 모습으로 열대 나라인 베트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나짱의 밤거리는 낮만큼이나 화려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대휴양지의 화끈한 밤 공기 속에서 베트남 전통 노랫가락이 곳곳에서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베트남의 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나짱을 여행하면서 베트남의 천가지 얼굴과 만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짱을 통해 본 베트남의 모습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이 안에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문화와 정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나짱에서 저희의 인턴 생활은 잊지못할 추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RUSSIA

‘동방을 지배하라’ 블라디보스톡 탐방기

11월의 어느 날, 연해주 법인 글로벌인턴으로 근무중이던 저희는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머무르던 작은 도시인 우수리스크를 벗어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주요 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을 지배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블라디보스톡은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도시였기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 가는 여행이 다소 걱정은 되었으나, 평소 저희를 잘 챙겨 주시던 주재원 선배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말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부터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을 달리자 ‘블라디 보스톡’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명한 LG다리(LG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를 지나, 제일 먼저 현대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계동 현대 사옥과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고 들어서 얼마나 비슷할까 궁금했었는데, 멀리서 보는 순간 ‘저기구나’ 싶을 만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견학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직원 분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텔 에서 친절한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한국만큼의 친절함을 찾는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곳에 있는 현지 직원들은 한국에서 서비스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한 뒤에 호텔에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가 다른 러시아에도 한국과 같은 친절함을 배양시키는 현대의 정신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현대호텔 견학을 마친 후, 블라디보스톡의 핫플레이스인 ‘독수리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워낙 유명한 장소인데다 주말이었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전망이 좋아서인지 결혼사진을 찍는 신혼부부들이 눈에 띄었는데, 조금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 쌍의 커플들이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촬영중이었습니다.



저희도 멋진 전망을 찍어보았는데요, 흐린 날씨임에도 사진이 제법 괜찮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전망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려 했지만, 너무나 예쁜 러시아 인형(마뜨료슈카)을 발견해서, 결국 여행 기념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전망대에 다녀와서는 '대장금'이라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수리스크 시내에도 한국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가격에 비해 맛은 조금 별로였어서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 음식이 그리웠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한국식당이 매우 반갑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를 반겨주신 한국인 사장님께서 메뉴에 없는 떡볶이를 주문했음에도 흔쾌히 만들어주시고, 정말 환대해주셔서 오랜 만에 특별하고 맛있는 한국식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극동 지역에서 유명한 극동연방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극동연방대학교는 러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학교로 알려져 있고, 국가의 주요 회의가 자주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러시아 특유의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현대적인 느낌의 건물들이 있었고, 캠퍼스의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캠퍼스 내에 해변이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근처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밖이 제법 쌀쌀했던 탓인지 따끈한 된장찌개 국물을 들이키자 몸이 녹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 잠시 거리 산책을 하고 나니 우수리스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은 예전부터 가 보고 싶었던 도시였기에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잠시 업무를 잊고 작은 도시인 우수리스크를 벗어나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SAUDI ARABIA

사우디를 떠나, 바레인으로

저희가 근무했던 사우디 아라비아는 요즘 세상 같지 않게 매우 폐쇄적이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 제한도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턴들은 뚝뚝 뚝뚝 나름의 재미를 찾아왔고 무엇보다 동기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힘든 건설 현장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해왔던 두바이로의 문화 탐방은 바레인 비자트립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여행 전에 코스 계획도 세세하게 짜고 드디어 여행을 떠난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현장이 아닌 어떠한 곳(시내 마트 제외)으로 떠나는 여행은 아마도 바레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 다들 생각했기에 그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출국수속을 끝내고 간단하게 요기를 한 후, 비행기를 타기 전의 시간을 이용하여 면세점을 구경했습니다. 규모나 서비스 면에서 다른 나라의 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떻게 세계 1위 공항이라는 영예를 안아왔는지 여기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둘러볼만 했던 기념품 코너에는 중동 국가답게 낙타, 호리병 등의 사막을 연상시키는 기념품들이 진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로 된 기념품인데, 생각보다 꽤 무거웠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품인 이 싯덩어리 낙타모형을 파견 후 한국으로 돌아갈 때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바레인으로 가는 항공사는 '컬프 에어'라는 항공사였는데, 식사도 역시 중동 느낌의 메뉴였습니다. 한국의 동그랑땡 같은 양고기 세 개와 푸석푸석하게 훑날리는 밥, 콩과 요거트. 저녁에 한국 식당에서의 만찬을 생각해 먹을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이 곳의 기내식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결국 식사를 신청했습니다. 공항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왔는데도 허겁지겁 계는 감추듯 해치워 버렸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나라, 바레인

한국이 아닌 사우디로부터 들어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레인의 입국수속은 무척 간단하고도 신속했습니다. 시간대도 낮이라 졸도 길지 않고 한산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사우디와는 다르게 공항에서부터 다른 듯한 바레인. 바레인에서 1박2일 동안 머무르기 위해 여행비자형식으로 신청을 하고, 수수료 50 리얄(약 1만5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낮 4시쯤에 바레인에 도착했는데, 후끈후끈한 사우디와는 달리 바레인은 그렇게 덥지가 않았습니다. 바람은 선선하게 불었고 불쾌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슬람국가 사우디에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든 돼지고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음식보다 한국에서 즐겨먹었던 삼겹살을 그리워 해왔고, 마침내 바레인 내의 한국식당에서 삼겹살, 김치찌개, 만두, 떡볶이, 냉면 등 사우디에서는 먹지 못하는 한국음식들을 배가 터지도록 흡입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첫 끼인 점심식사에서도 삼겹살을 구워먹는 동지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동안 저희가 얼마나 돼지고기에 목메왔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바레인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인지 바다인지는 알 수 없었던 물과 다리, 그리고 저 멀리 고층의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비하면 조용하고 아담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방이 모래사장으로 딱 막힌 현장에서 생활했던 저희로서는 이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차를 빌릴 수 있어 계획했던 곳들을 구경하려 했지만 휴일이라 갈 곳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우리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의 온 바닥에 바레인의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어 신기했고, 옛날부터 쪽 이어져온 바레인 사람들의 생활과 여러 문화 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구석 한 칸에는 카페도 있어서 케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즐길 여유도 가졌습니다.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6기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 인턴들의 1박2일 바레인 여행기. 제한된 예산과 짧은 일정으로 많은 곳을 둘러보진 못했지만, 현장을 떠나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고 가까워졌으며, 생소한 나라였던 바레인의 문화도 조금이나마 접해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SAUDI ARABIA

다양한 얼굴의 두바이

10월 22일 오후 9시, 사막 같이 삭막한 사우디 현장 생활 에도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비자 갱신 겸 문화 탐방을 위한 두바이 여행하는 날입니다. 슈케이크의 인턴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밤에 차를 타고 Abha 공항으로 갔습니다. 간단하게 압하 공항에서 요기를 한 저희는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꿈의 도시 두바이로 떠났습니다.

10월 23일 오전 4시, 약 4시간 정도의 비행을 하니 UAE의 대표적인 도시 두바이의 야경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뜬 마음을 추스르고 첫 번째 일정 장소인 Gold souk으로 향했습니다. Souk은 아라비아어로 '시장'이라는 뜻으로 금시장을 말합니다. 새벽에 도착한 탓에 가게들이 열려 있지 않아서 금시장 거리만을 둘러 보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새벽 농수산시장에 들러 아침 시장 특유의 활기 넘치는 풍경과 비릿한 생선 냄새를 맡으며 지쳐있던 마음을 깨워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바이의 핫 플레이스 두바이몰로 자리를 옮겨 아침을 먹은 후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원래 명칭은 버즈 두바이였습니다. 여기에는 명칭이 바뀌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09년 말 금융위기 때 두바이는 도시 재정이 바닥나 빛을 감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행)상황이 되기 직전 아부다비 지도자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두바이의 가장 높은 빌딩인 버즈 두바이의 이름에 그의 이름을 넣어 부르즈 칼리파로 개명하였다는 훈훈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방에서 한눈에 보이는 호텔에 여독을 풀다가 갑작스럽게 호텔에 있는 팜플렛에 꽂혀서 야경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두바이 주변을 흐르는 강가를 따라 두바이의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눈부신 도시의 야경과 함께 유람선에 타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 마음도 차분하고 평온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6시, 전화벨이 자꾸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알 수 없는 언어로 재촉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깼습니다. 아침에 사막투어를 예약해놓고 늦장을 부린 것입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저희와 같이 사막투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신혼부부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차에 올랐습니다. 사막의 오프로드를 체험하면서 제 안에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짜릿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내린 곳은 설명하기 힘든 사막으로 그 풍경 앞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연신 사진만 찍어왔습니다.

10월 24일 오후 1시, 저희는 팜 주메이라로 이동했습니다. 팜 주메이라에 있는 souk에서 기념품을 산 후 버즈 알 아랍과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퍼블릭 비치로 이동했습니다. 자유롭게 다양한 인종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퍼블릭 비치를 본 순간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가지고 온 수영복 바지를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적당히 울렁거리 재미도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오후 8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두바이 공항으로 가서 다시 현장에 복귀할 준비를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몸은 지쳤으나 많은 경험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Asan
Global Intern 6th

Homepage

www.asan-nanum.org

Facebook

www.facebook.com/TheAsanNanum

Blog

blog.naver.com/asan_nanum